

제 10 장

계시와 영감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뵘후(1 : 20 - 21)

성경의 본 구절을 문자적으로 봅시다. “사사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이디오스(*ιδιος*)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의 문자적인 의미는 “자신의 개인적인 소유”라는 뜻입니다. “풀다”로 번역된 헬라어 에필루시스(*ἐπίλυσις*)는 문자적으로는 “풀어주는”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기원 혹은 원천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이다, 아니다”라는 동사는 흔히 쓰는 “존재하다”라는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아기네타이(*ἀγίνεται*), 즉 “존재하게 되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쓴 그대로 이 문장을 번역해 봅시다. “어떤 예언도 한 사람 자신의 창작으로 있게 된 것은 아닙니다.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대로 옛적에 이야기 함으로써 있게 되었습니다.”

핵심적인 다른 구절은 사도 바울의 글에서 나타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딤후 3:16).

이 구절을 자세하게 봅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데오프뉴스토스(θεόπνευστος),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데오프뉴스토스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집니다. 첫째 부분인 데오스(θεός)는 영감을 주시는 분, 계시자, 하나님 자신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시의 수단에 영감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계시”와 “영감”이라는 두 단어는 둘 다 라틴어입니다. *Revelo* (레벨로)라는 것은 “벗겨내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다, 폭로하다” 등의 뜻이 있으며, 그것의 명사형이 *revelatio* (레벨라치오)입니다. 라틴어의 *revelo* (레벨로)와 같은 의미를 갖는 헬라어는 아포칼립토(ἀποκαλύπτω)입니다. 아포칼립시스(ἀποκάλυψις), “벗겨냄, 폭로함”이라는 단어는 명사형입니다. “아포칼립시스”(묵시, 계시록)라는 단어는 영어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의 첫째 부분 데오스는 하나님, “폭로자,” “계시자,” “진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이 단어의 둘째 부분은 프뉴스토스(πνεύστος)입니다. “호흡”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프뉴마(πνεῦμα)인데, 라틴어로는 *inspirantis* (인스프란치스)입니다. 라틴어의 동사형은 *inspiro* (인스피로), “숨을 불어넣다”는 뜻입니다. 그것의 명사형이 “숨을 불어 넣은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엠프네오(ἐμπνέω), “숨을 불어넣다”라는 단어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전체 선언 중에서 독특한 비유적 표현입니다. 마치 플류트 연주자가 자기 악기에 숨을 불어 넣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도구인, 성경 속에 숨을, 당신의 말씀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계시(진리를 드러냄, 폭로함)와 영감(계시를 기록하고 전달함)에 의해 하나님의 숨이 불어 넣어진(θεόπνευστος) 것입니다.

계시란 아무도 인간의 능력이나 자연적인 힘으로는 알 수 없는 중

류의 진리를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연구나 관찰, 조사, 경험 등에 의해서는 결코 알 수 없었던 진리를 드러냄, 즉 결코 알 수 없었던 진리를 드러냄, 폭로함을 뜻합니다. 그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 분이 그것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계시를 드러내는 것이며, 아포칼립시스(ἀποκάλυψις)며,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예를들면, 세계의 창조는 계시입니다. 아무도 그 때는 없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계시로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야만 합니다.

영감은 하나님의 진리의 전달을 말합니다. 계시는 하나님에서 비롯되며,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령은 계시의 진리가 쓰여진 말씀, 즉 성경 속에 붙여넣어 집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해 내려가는 것이 영감입니다. 모세는 영감에 의해서 실수없이, 틀리지 않고 빠짐없이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은 밧모섬에서, 그리스도의 계시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계시, 아포칼립시스(ἀποκάλυψις), “벗겨냄”인 것입니다. 아포칼립시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요한계시록의 처음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사도 요한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시대의 종말, 역사의 완성이 드러나지 않았었습니다. 종말 때의 모든 것이 거기에는 파노라마 처럼 펼쳐져서 사도 요한의 눈 앞에 드러납니다. 그것이 계시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틀림없이, 정확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실수없이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이 영감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신적인 진리의 내용을 말합니다. 영감은 하나님의 진리의 기록 혹은 전달을 말합니다.

계시

계시는 세 가지 전체 위에서 있습니다.

(1)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하실 수 있고 대화를 원하십니다.

(2)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며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3) 언급된 진리는 관찰이나 추론, 혹은 자연적인 능력을 이용해서 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었던 종류의 것입니다. 가령, 태양이 저의 살갓을 태워 벗겨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경험과 관찰입니다. 그러나 그 태양이 어디서 생겼고 누가 하늘 거기에 태양을 매달았는지는 관찰해서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천문학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단지 그것을 바라보는 것 뿐입니다. 태양의 기원을 설명하거나 누가 그것을 창조했는지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계시로만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적인 진리를 계시하시고 알리시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하나님은 진리를 객관적으로, 외부적인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당신 자신의 손가락으로 돌판에 기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객관적인 계시입니다. 다니엘의 기사에 보면 벨사살의 축제에서 하나님은 벽위에 칠한 흰 벽에 글씨를 쓰십니다.

그것이 객관적인 계시입니다. 모든 객관적인 계시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요 1:14, 17).

예수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가 객관적으로, 외부적으로 표현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주 예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주 하나님을 따르겠습니까? 주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적인 진리를 드러내시는 한가지 방법- 외부적인, 밖으로 드러난, 객관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2) 하나님은 당신의 신적인 진리를 신비하게, 꿈과 환상으로 전달하십니다.

여러분께서 에스겔이나 다니엘을 읽으실 때, 또는 사도 바울이나 바토섬의 요한 같은 사람들의 생애를 검토해 볼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적인 진리가 꿈과 환상으로 계시되며 드러나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신적인 진리를 드러내는 두번째 방법입니다.

(3)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진리를 내면적으로, 주관적으로 나타내십니다.

열왕기하 3장을 보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려고 할 때에, 그는 거문고 탈 자를 불렀습니다. 그 거문고 타는 자가 거문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했습니다. 여러 번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는 말을 하고서, 그 후에 특정 선지자나 전달자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전달자의 마음에 주관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벨사벨 궁전 벽의 흰바탕에 하나님의 손이 글을 썼을 때는 객관적인 계시였습니다. 그 말들의 의미를 다니엘이 왕에게 설명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주관적인 계시였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계시하시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드러내시는 신적인 진리, 하나님의 계시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 계시는 언제나 점진적이고 진보적입니다.

계시 속에는 상승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계시는 모으고, 자라며, 팽창하고 언제나 전진하고 상승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활동적이고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계시 속에는 언제나 전진하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구원이 따르고, 구원에는 의인(義認)이, 의인에는 성화(聖化)가, 성화에는 영화(榮化)가 뒤따릅니다. 하나님의 계시 속에는 언제나 움직임과 발달과 상승이 있습니다. 성경은 마치 강물의 흐름이 여기, 저기서 조금씩 모여서 마침내 그 흐름이 어마어마한 큰 대하가 되는 것과 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서두 구절에서 이렇게 단언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1:1-2).

이 모든 지류들이 최종적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충만한 계시를 살찌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의 점진성을 상형문자를 가지고 예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은 그림으로, 즉 상형문자로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밀봉된 이집트의 무덤들을 들어가 보시면 상형문자들을 보시게 됩니다.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야 사람들은 알파벳을 가지고 추상적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당신의 신적인 진리를 그림으로 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진리를 형태로, 상징으로, 제의로, 규례로, 의복으로, 가구 등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들 속에 표현하셨습니다. 예배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 하나 독특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즉, 제사장이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하며, 가구들을 어떻게 배치해야 하고, 등잔대와 진설병과 향단의 사용법, 제의, 형태 등이

독특한 의미를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진리를 모양으로 나타내셨고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궁극적인 진리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계시는 어린 아이가 인격이 형성되고, 양육되며 성숙해 지도록 인도받는 것과 꼭같이 발전되고 진보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는 종종 강요받기도 하고 훈련받기도 해야 합니다. 훈련받지 못한 아이를 기르는 것은 어린 아이의 일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는 인도가 필요하고 강제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초달을 차마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잠 13:24). 계시의 처음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은 이런 종류의 강제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인들을 근절시키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사울은 아각과 아말렉인들을 멸망시키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성경은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도덕적인 설득에 근거해서 호소를 합니다. 저는 심판의 회초리나 칼을 여러분에게 들이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심령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계시는 어린 아이가 어른 되어 갈 때와 같이 점진적으로 발전합니다.

한번은 저는 주일 학교에서 나쁜 소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주일인가, 그 소년이 마치 성숙한 신사처럼 행동을 해서 선생님을 놀라게 하더랍니다. 그 선생님은 학급에 있는 다른 학생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희들이 저 아이에게 무슨 말을 했니?”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단지 코를 한방 쥐어 박았습니다!”

아주 잘사는 유복한 집안의 망나니 개구장이 소년이 훌륭한 큰 상점에 왔었습니다. 그는 목마 위에 올라타서 내려오지를 않았고, 그 어머니는 그를 끌어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점원은 부자 고객을 나무라지 못해서 어떤 심리학자에게 와서 그 소년을 목마에서 끌어내려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 심리학자가 그 소년에게 잠시 이야기를 한 뒤에, 그 소년은 즉시 목마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집에 와서 그 아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심리학자가 너에게 무어라고 하셨지?” 그 소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심리학자는 제게 그러던데요. ‘너 당장 그 목마에서 내려와, 안그러면 내가 딸 안장에서 엉덩이를 떼지도 못하게 두들겨 줄테다. 그러면 네 엉덩이가 시큰거리서 한 일주일은 앓을 수도 없을거다!’ ”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주목을 끄시려고 하시지만, 결국에는 그 분이 우리들을 궁극적인 성숙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계시의 첫번째 특징입니다. 그것은 운동성과 발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계시는 언제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초에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나체를 가리려고 무화과 잎사귀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은 적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흠 없는 동물의 붉은 생명의 피를 흘리시고는 우리의 최초의 조상들의 나체를 가리기 위한 가죽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입구에서 천사는 우리의 최초의 조상들에게, 양을 잡고, 제단을 쌓고, 양을 하나님께 희생으로 봉헌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회막이나 성전 예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상징들도 훌륭하고, 모든 의복들도 비할데 없고, 의식 순서도 영감을 주는 것이지만 그것들은 무엇인가 다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때가 차면, 그래서 원형이 나타나면, 그리스도교는 자신의 기저귀를 벗어 던지고 성숙하여 걸어 나올 것입니다. 모든 계시는 목적이 있고 신학적이며,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의미를 향해 뻗어가는 것입니다.

(3) 하나님의 계시는 언제나 동질적입니다.

계시는 언제나 연속성과 일치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진술이 다른 진술과 모순되지 않고, 언제나 내내 동질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 중에서, 우주는 하나의 위대한 전능하신 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구 위에서 지켜지는 법칙들과 같은 법칙들이, 달과 화성, 토성, 은하수, 또는 행성계에서도 지켜진다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우주의 어느 곳에서 여러분이 피조물을 발견하더라도, 여러분은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서도 여기서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지배하는 법칙은 우리 주위에서 행성들과 천체를 지배하는 것과 같은 법칙인 것입니다.

계시는 마치 수학과 비슷합니다. 기하학이나 미적분학이나 또는 수학의 어떤 다른 분야라 할지라도 수학의 기초를 구성하는 간단하고 낮은 단계의 공식과 모순이 발생하는 수학적 학문은 없습니다. 여기서는 감싸져 있던 것이 저기서는 펼쳐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쪽에 있는 어떤 것과 모순되는 것은 이 쪽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계시입니다. 그 분이 계시를 모순 없이 나타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의 확대를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영감

하나님의 진리의 전달, 성경 기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오류없이 기록하도록 인도하는 성령의 기적을 영감이라고 합니다. 영감에

관해서는 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세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1) 성경의 기록의 영감에 대한 합리주의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합리주의자들도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초자연적인 것을 믿지 않으며,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보통 인간의 기능, 능력, 재능 등의 산물인 것입니다. 성서기자들 속에 있는 영감은 호머, 버질, 키케로, 밀톤, 셰익스피어 등등, 다른 위대한 문학작가들의 영감받은 천재성 속에서 발견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것으로 여깁니다. 성경은 사람, 천재의 영감의 산물이며, 그것이 전부입니다.

(2) 성경의 부분 영감 이론 (fractional theory)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성경이 여기 저기 부분적으로는 영감받은 것일 수도 있다고 제안합니다(그리고 이 이론의 지지자는 그 부분들을 지적해 내는 영감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영감받은 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론의 주장자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골라냅니다.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조각 조각 내어 버리고 맙니다.

(3) 성경의 기계적 영감 이론이 있습니다.

물론 이 이론도 우스운 것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을 혈뜯기 위하여 이러한 허수아비 이론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마치 편지 받아 쓰는 구술기나 속기사를 시켜 편지를 받아쓰게 하듯이 하나님이 성경을 받아쓰게 하셨다고 믿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성경 기자인 사람은 성경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허수아비 이론이 제기된 것은 성경의 영감성을 믿는 사람들을 꺼꾸러 뜨리고 조롱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의 영감에 대한 저 자신의 확신, 즉 하나님의 진리를 기록한 데 대한 저 자신의 확신은, 하나님의 성령이 초자연적으로 성경의 기자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계시를 적어 내려가게 했다는 것

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성령의 숨결과 방향과 영감 아래서 써내려 갔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빠뜨리는 일 없이 실수없이 써내려 갔습니다. 그것은 성경 자체의 증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독립된 인격체로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성서기자들을 다시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예를들면, 불이 붙었으나 타버리지 않는 떨기나무는, 비록 타버리지는 않았지만 역시 떨기나무였습니다. 엘리야에게 음식을 날라다 준 까마귀는 비록 하나님을 도와 그 일을 했지만 역시 까마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하도록 명하신 어린 아이와 젓먹이의 입은 비록 하나님께서 찬양을 그렇게 작은 아이들에게서 나오도록 했을지라도, 역시 어린 아이와 젓먹이의 입이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기자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그들을 있는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예를들면, 성경은 모세가 애굽의 모든 예술과 학문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궁정이었기 때문에 그는 법률과 통치를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세의 율법을 읽어 보면, 여러분은 법률적으로 훈련된 모세의 마음을 감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궁정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시적인 표현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그는 하나의 영화롭고 숭고한 열변을 하고 거기에 이어서 또 다른 열변을 하곤 하였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영광에 있어서나 숭고한 장엄성에 있어서 이사야의 설교에 필적할 문학은 없습니다. 그 반면에 아모스는 시골 목사였습니다. 여러분이 아모스를 읽으시면, 들판의 밭이랑의 곡선의 체취를 맡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은 천재적인 시인이자 이스라엘의 감미로운 가수였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세한 모습을 계시하고 기록하는 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잠언을 쓰기 위하여 현명한 솔로몬을 사용하셨습니다. 의사 누가는 역사적인 연구에 흥미가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썼을 때에, 그는 자신이 열심히 자기가 기록하고 있는 모든 진리의 근

거지를 돌아다녔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소의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랍비에게서 율법을 배운 학생이었습니다. 그가 공부하던 기간 내내, 그는 당대 최고의 랍비인 힐렐(Hillel) 문하에서 배웠고, 다른 위대한 랍비들에게도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의 서신을 읽으실 때에는 신학자의 글을 읽으시는 것입니다. 그는 신학교에서 훈련받은 사람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이 계시가 기록된 방법입니다. 즉,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람의 재능과 능력에 맞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와같은 일은 현대에도 마찬가지로 사실입니다. 보스턴에 있는 필립스 브룩스(Phillips Brooks)는 교육받은 설교자입니다. 여러 해 동안 보스턴에 있는 트리니티 교회(Trinity Church)에서 그는 학문적이고, 유식하고, 세련된 보스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시카고의 빌리 선데이(Billy Sunday)는 먼지 나는 오솔길을 여행하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그는 화이트 삭스(White Sox) 야구팀의 선수였는데 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식하고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얼마나 다릅니까! 성령은 두 사람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세련된 필립스 브룩스와 땅바닥을 기며, 지옥불과 저주를 말하는 먼지 투성이 설교자 빌리 선데이, 하나님은 그 사람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영감이 진리의 메시지 안에서 그를 인도하시는 성령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우리들은 영감이 세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1) 참된 영감은 언제나 완전합니다.

그것은 전체 성경에 관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 데오프뉴스토스(θεόπνευστος), 완전한 것입니다.

(2) 참된 영감은 언제나 문자적입니다.

그것은 언어 그 자체 속에 있습니다. 영감을 받은 것은 바로 말씀이지 주관적 체험을 기록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의 생각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악보없는 음악이나 가락은 없습니다. 숫자없는 수학도 없습니다. 말씀없는 성경도 없습니다. 만약 성경이 영감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숨결이 배인 것이라면, 말씀도 영감받고 하나님의 숨결이 배인 것이어야만 합니다.

(3)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문자적일 뿐만 아니라 또한 초자연적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옛날에 사람이 창작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에 감동된 대로 말한 것입니다.”

예언의 기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지기 수천년 전에 하나님은 계시하셨고, 그 계시의 기록들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즉시 억만 장자가 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단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몇 분 전에만 알면 됩니다. 그것으로 다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구요? 뉴욕 증권 거래소로 가서 주식이 오르기 직전에 그것을 사십시오. 주식이 떨어지기 직전에 그것을 파십시오. 곧 여러분은 억만 장자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신적인 진리를 그 일이 벌어지기 수천년 전에 계시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런 예언을 쓸 수는 없습니다. 기록된 진리는 아주 기적적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한 기적적인 하나님의 진리에 관한 실례를 들겠습니다. 지난 거의 사십 년 동안, 저는 매주일에 세번 씩 달라스에 있는 제일 침례 교회에서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영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저는 종종 특별한 인생을 살고 싶다. 그리고 영문학 교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번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영문학을 강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제가 경제학에 흥미가 있어서 사십 년 동안 내내 경제학을 강의해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역사학이나 아니면 천문학, 물리학, 화학, 약학 혹은 제약

학 등과 같은 학문들을 이 중요한 강단에서 강의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집회를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3주일, 2주일 아니면 일주일? 그러나 37년이 넘도록 저는 이 성경책을 설교해 왔고, 성도 수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왔고, 또 몇 년 혹은 몇 십년 동안 계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입니다!

여기에 그 기적의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일 집회에 앉아 계시는 때, 여러분은 중생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 곁에 앉아 계시는 것을 발견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앉아 계시는 그 남자 분이냐 혹은 여자 분은 과거에는 시궁창에서, 먼지 속에서, 혹은 진흙 구덩이에서 있던 사람이었을 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 그 책에 기록된 계시 그리고 목사에 의하여 설교된 계시가 그들을 예수님의 발 아래로 인도하고, 그들을 구원했으며, 이제는 그들이 새로운 집과 새로운 삶과 새로운 심령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기적입니다!

크리스토퍼 워렌 경(Christopher Wren)은 위대한 조각가이자 성 바울 성당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 분은 그 곳에 안장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무덤 앞에 서있는 동안, 저는 그의 이름 위에 쓰인 라틴어 헌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Lector* (렉토르, “독자들이여”), *Si Monumentum Requiritis* (시 모뉴멘툼 레퀴리스, “만약 기념비를 찾는다면”), *Circumspice* (치르쿰스피세,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저는 오늘도 그 말을 자신있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찾으십니까? 여기 모인 여러분들 각자가 주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은 일어서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언어 속에서, 그리고 그 메시지 속에서 보는 성령의 감동입니다.